

조선시대 목가구의 비례미 연구 - 사랑방가구(책장, 서안, 사방탁자)를 중심으로 -

김 정 호[†]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A Study of Beauty Proportion of Wooden Furniture of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Furniture of the Hall (Book Chest, Writing Table, Open Etage) -

Chung Ho Kim[†]

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314-701, Korea

Abstract: Beauty of the proportion of the furniture of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along with the ideological background. Furniture Joseon, can know that it has emphasized the beauty by placing the base with simplicity and to base the natural view. However, efforts are missing try to find a logical answer about what is configured by any principle view of nature we are talking about.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we study the beauty of proportion to the center of the hall furniture Korea dynasty, and it was studied perspective of view of nature of the times. Around the neck of the Joseon Dynasty furniture, it is going to become an opportunity to say fundamentally the culture of their own ingenious with uniqueness by reviewing the discrimination of the cultural identity. That illuminates the housing cultu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and space, to pursue the unity is going to be able to find a lot of information from a wider point of view. In this paper we present a visual furniture material for efficient survey through use of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is used as related documents that can be usefully employ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furniture design.

Keywords: *reception room in a house for male guests, wooden furniture, the beauty of propor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의 모든 지역과 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우리는 선진국이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고 융합되는 ‘신문명국’이라 일컬을만한 다국적 문화시대 도래의 길목에 서있다. 다국적 문

화시대는 국가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중요시되는 자국의 정체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어우러지고, 닮아가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에서 나아가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적으로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 복합의 시대라 일컬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디자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이란 진행 중인 재생산

2014년 3월 15일 접수; 2014년 4월 15일 수정; 2014년 4월 18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정 호 (chkim2@kongju.ac.kr)

과정으로, 과거의 재현과 오늘의 현존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은 그 민족의 형성의 파악 없이 문화적 발달과정을 밝힐 수 없다.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그 문화적 창조물은 항상 유기적 연관성의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을 함께한 가구는 공간과 생활을 연결해주는 주요 매개체로 공간구성과 생활의 주요 구성요소로 깊이 있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가구의 특성 규명을 위해서는 가구가 배치되고 사용되어지는 주거문화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가구가 지니는 특수성의 규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본연의 표현 양식을 부각시키고, 독자적 특성을 현대적 디자인 이론에도 부합시켜 본연의 가치가 재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조가구에서 나타나는 짜임의 구조와 실용성은 미니멀리즘의 간결한 면분할에 의한 잘 정리된 조형미로 장인의 숨결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가구를 만드는 장인들의 노력과 땀이 깃들여 있는 조선조 가구를 대할 때 우리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물론 내적인 아름다움에 의해 숙연해지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므로 외형의 아름다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단순한 비례에서 우리나라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자연에 순응하는 삶과 정신을 가구에 담아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랑방가구에 나타난 비례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조선조 목가구에 근원적으로 존재해 있는 비례미를 밝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경쟁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목가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가구의 디자인 특성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의 주거문화·전통 주택과 가구의 역사와 특성을 기준틀에 따라 비교 정리하고, 주거공간과 가구의 주요 개념을 도출하

여 조선시대 목가구를 파악한다.

둘째, 조선시대 목가구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양적접근 방식의 평가도구를 통하여, 대표성을 갖는 조선시대 목가구의 디자인 특성을 밝힌다.

본 연구는 독자적인 자국의 공간 문화적 가치 구현의 일환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 주거문화의 분석을 중심으로 시대적 공간적 주거문화에 의한 공간과 조선시대 목가구의 주요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여 상호 지원 및 보완의 관계를 갖도록 한다. 문헌조사 연구방법은 과거의 내용을 가진 자료를 다루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크게 대별되는 논리학의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중 주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에 서로 연결되는 변증적인 방법론으로 진행한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장 연구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연구자의 인지적 판단 능력을 심화한다.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서는 기초적으로 조사된 문헌연구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도서관 자료검색을 통한 문화인류학, 주거학, 건축학, 역사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의 과정 속에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진다. 1단계로는 조선조 목가구의 일반적 고찰, 2단계에서는 조선조 목가구의 구성과 비례, 3단계에서는 조선조 사랑방가구 중 책장과 서안 그리고 사방탁자에서 나타나는 비례미를 연구한다.

2. 조선조 목가구의 일반적 고찰

2.1. 조선시대 가구의 제작배경과 현황

조선시대 주거공간은 승유정책으로 인한 대가족제도와 장유유서, 남녀유별사상 등의 영향으로 크게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그리고 대문과 행랑채와 바깥마당으로 구분된다. 안채와 안마당으로 형성되는 공간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내적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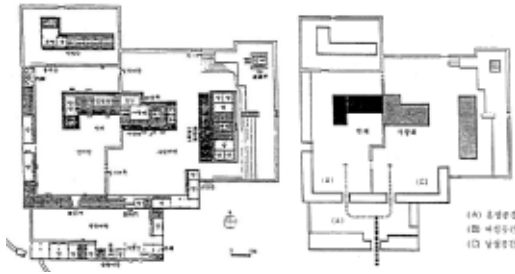


Fig. 1. Spatial composition of the residential upper-class of the Joseon Dynasty.

폐쇄적 공간이며, 사랑채와 사랑마당으로 형성되는 공간은 외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주인의 거실, 서재 및 접객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비교적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대문과 행랑채 및 바깥마당으로 형성되는 공간은 사용인의 거처 또는 마구간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북측에 산을 등지고 남측이 넓게 터져있는 자리에 위치하여 안채와 사랑채를 남향 또는 동남향에 배치한다.

평면구성의 형태에는 안채를 기준으로 안채를 감싸는 모양을 한 단순형, 사랑채가 연결되어 안채를 지키는 모양을 한 복합형, 그리고 풍수적인 길자에 의해 평면구성을 한 문자형이 있다. 그 성격은 외부로 면한 부분은 담과 고창으로 되어있어 폐쇄적이지만 담장 속의 각 채들은 대부분 벽체가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필요에 따라 모두 접어 들쇠에 매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 내에서는 개방적인 이중성을 띠고 있다.

창호들이 대부분 열 개로 되어있고 방과 방사이도 창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실의 비밀성이 무시된 듯 보이나 필요시에는 덧문 속의 쌍창, 쌍창 속의 맹장지, 그 다음 방쪽과 병풍을 이용하여 충분히 비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주택공간은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이고 내부적으로는 개방적인 이중성 비대칭적인 균형공간의 연속성과 위계성, 공간의 상호침투성 등의 다양한 공간특성을 이루고 있다(Fig. 1).

조선시대 주택의 특징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외부공간은 기둥, 도리 등의 목재가 갖는 노출된 나뭇결과 구조재의 선적인 표현, 처마의 서까래 등이 갖는 선적인 리듬, 그리고 입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호들의 살 짜임으로 이루어진 선적인 구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도 선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내부공간은 외부공간과는 달리 기둥과 도리, 보 등이 대부분 벽지나 천정지로 가려지고 대청의 경우와 같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부재들은 벽체부와 함께 하나의 면으로 구성되고, 창호의 경우도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안쪽으로 창호지를 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면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실내공간은 합리적인 동선과 좌식생활에서 오는 시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가구와 기물의 배치로 실내공간에 원만하고 통일된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과 합리성을 준다. 또한 비교적 좁은 실내공간이므로 “가구의 70% 이상을 천정고의 1/2선 아래에 놓아 그 하중을 하부에 둬”으로서 가구에 의해 압도되는 일 없이 안정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전통주거에서 초가지붕과 목조구조가 외형을 결정지어준 요소라면, 온돌과 마루는 우리 생활양식과 주거의 공간특성을 만들어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2.2. 전통적 가구배치의 특징

서구나 중국의 의자생활은 넓고 높은 실내공간을 형성하여 자연히 가구들도 크고 육중하며 장식적인 면을 띄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를 즐기는 기질과, 특히 온돌로 인한 평좌생활의 영향으로 천정이 낮고 실내도 비교적 좁아, 가구들은 부담감을 덜고 보다 많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낮고 간결하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방의 중심에 놓이는 가구들도 효과적인 공간활용성을 위해 유동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서안과 연상을 비롯하여 문갑, 받다이, 소반 등이 모두 키가 낮고 세로 폭이 얇은 것은 평좌 자세에서의 실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장이나 농, 책장, 사방탁자 등이 낮고 간결하게 제작된 것도 좁은 실내공간과의 조화 및 부담감을 고



Fig. 2. Jeonlado Chest / 19C (1,143 × 456 × 806 mm).

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목가구들은 이러한 낮은 키와 간결함에 따라 생기는 벽면의 여백과 조화되고 또 실내의 기물들과도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 한국적 미의식 위에 단순하고 정선된 특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한민족의 의식을 지배해 온 유교사상, 특히 남녀유별의 관념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이 각각 나뉘어져 있었고, 남성들은 주로 사랑에서 여성들은 안방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영위 하였으므로 사랑방과 안방의 가구들이 그 용도와 취향에 뚜렷한 개성을 갖게 되었다.

3. 조선조 목가구의 구성 및 비례

3.1. 목가구의 구성요소

조선조가구의 장과 농의 내부는 주로 행자목을 사용하였다. 이 가구들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둥, 쇠목, 동자, 마대, 족대 등은 주로 소나무, 느티나무, 참죽나무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가구의 구성 중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복판, 쥐벽 칸, 머름칸 등은 최상의 나뭇결을 선택하여 자칫 단순할 수 있는 조선조 가구에서 그 조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받달이는 굵고 폭넓은 판재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이나 농에 비하여 그 크기는 작지만 무거운 편이다. 구조는 천판, 측널, 앞널, 뒷널, 문판 등으로 구성된 단순 구조이지만 수납을 고려한 짜임새로

적재적소에 맞게 튼실하게 구성되어 있다(Fig. 2).

사방탁자는 방형의 네 기둥과 측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이 트여 있어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밑 부분의 측널 한 단을 수납장으로 만들거나 혹은 수납장 위에 두 개의 서랍을 결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2·3층의 측널 양면, 또는 뒷면을 막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형태를 사랑방에서는 문방가구로, 안방에서는 애완물 등을 올려놓는 장식가구로 즐겨 사용하였다.

구성은 얇은 쇠목의 연결을 맞짜임 혹은 연귀촉짜임으로 튼튼하게 물리고, 문판에는 문변자를 둘러 문판이 휘어지는 것을 막았다. 사방탁자는 검소한 조선시대 문방생활을 운치 있게 하는 대표적 가구로서, 그러한 분위기에 맞게 자연의 나뭇결을 잘 살린 부재를 문판에 썼다. 그리고 기능상 꼭 필요한 경첩·앞바탕·들쇠 외에는 많은 금구장식을 삼가고 재료도 거멸쇠 및 주석을 사용하였다. 목재는 불에 그슬리거나 재로 문질러 광택을 없애고 나뭇결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골재는 참죽나무·소나무·배나무를 썼고, 판재는 오동나무·소나무를 사용하였다. 사방탁자의 구성미는 가느다란 기둥과 가로지른 쇠목의 비례가 우수하며 그 결구의 기법도 뛰어나 조선시대의 공예미를 대표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방탁자)(Fig. 3).

소반은 평평한 반면의 통판 널과 여기에 연결되는 다리로 이루어진다. 반 아래에는 여러 가지 조각이나 문양으로 장식한 운각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는 중대와 족대가 있다.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 상이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 유교이념인 남녀유별·장유유서의 사상으로 겸상보다는 독상이 주로 쓰였으며, 공간적으로도 부엌과 방이 멀고 규모가 작으면서 좌식생활을 하는 한식 온돌방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소반의 종류는 산지·형태·용도에 따라 60여 종으로 분류되며 명칭과 구조가 다르다. 각 지역은 그 지방 특유의 수목과 생활양식에 따라 지방색을 띠며, 그중 특색이 두드러지는 것이 통영반·나주반·해주반으로 제작·기교면에서 뛰어나다.

반면의 형태는 8각·12각·장방형·4방형·원



Fig. 3. Four-shelf Open Etagere / 19C 1,495 mm (Central Museum Possession).

형·반월형·연엽형·화형 등으로 분류되며, 다리는 모양에 따라 구축반·호족반·죽절반·단각반 등으로 불린다. 경상도는 죽절형, 전라도는 호족형, 강원도·경기도는 구축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재료는 은행나무·호두나무·가래나무·오동나무·피나무·느티나무 등이 반면에 사용되었고, 다리에는 소나무·단풍나무·버드나무 등이 쓰였다.

표면의 칠은 생칠·주칠·흑칠과 일반 식물성 기름칠을 하여 소반이 뜨거나 흠이 생기는 것을 막고 방수가 되게 하였다. 주칠은 혼례용과 궁중용으로 쓰였고, 흑칠은 제사에 사용되었다. 색깔은 황토분·석간주·치자 등으로 입히며, 좀 더 진한 색을 내기 위해 먹물이나 검은 흙을 섞어 바르기도 하였고 화려하게 자개를 박아 장식한 것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반)(Fig. 4).

3.2. 조선조 목가구의 비례

조선시대 유교적인 윤리관은 예술에 현저히 반영되어 있다. 특히 남녀유별의 관념에 따라 주택의 구조도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고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가구들도 각각의 다른 개성을 지니며 발전해



Fig. 4. Tray (Tiger Leg) 430 × 287 mm (Central Museum Possession).

왔다.

여성들이 거주하는 안채는 사회적 규율에 얽매이고 또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찾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자녀를 기르고 가정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므로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가구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안채의 내실가구는 사랑채의 간결한 선과 검소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밝고 화사한 것이 특징이다(이 1986).

조선조 목가구는 우리 선조의 얼이 고스라니 담겨있으며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다듬어지면서 환경에 적합한 비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목가구는 가구 표면의 면분할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각 부재를 마름하는 구체적인 척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의 면구성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균형으로서 정연한 질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은 곧 거기에 배어 있는 일정한 조형척도를 암시한다(이 1986). 이러한 조형척도를 현대의 수치로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가구에 쓰인 실측 400여 개 중 황금비와 자승근비 내지 정방형의 비가 많이 발견됐고, 특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균형미, 이른바 황금비(1:1.618)가 면분할에서 상당히 정연한 질서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목가구가 재료의 제약과 장인들의 기질로 인하여 어떤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비례에 대한 보편적인 조형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비례의

Table 1. Basic dimensions of furniture of the hall (unit: mm)

종류/규격	높이	앞면너비	옆면너비
책장	850~1,340	660~1,130	390~440
서안	230~290	510~750	140~290
사방탁자	890~1,620	360~490	340~390
문갑	230~530	590~1,710	140~260
연상	170~270	240~420	180~290

아름다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김 2000). 이상과 같이 조선조 목가구는 나지막한 키와 간결함으로 생기는 벽면에 여백과 조화를 이루며, 실내에 있는 다른 기물과도 어우러지도록 제작되어 한국적이고 단순 정연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다.

목재는 계절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커서 너비가 넓은 판재는 휘거나 터지는 등, 변형이 심해 가구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면의 넓은 부분들을 좁은 면분할로 재구성하여 수축과 팽창을 줄였으며, 좁은 면이기에 아름다운 무늬결의 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가구 전체에서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로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구조와 역학을 감안한 시각적 효과를 살린 격조 높은 기법으로 발전되었다.

4. 사랑방가구에 나타난 비례미

4.1. 사랑방 구성요소

사랑방은 남성의 생활공간으로,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글을 읽고 그림과 시를 즐기며 후학을 기르는 학문의 온상인 동시에 손님을 맞아 인생과 정치철을 논하는 사교의 장소였다. 이러한 사랑방의 내부공간은 화려하고 복잡한 것보다 소박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필연적이어서 이에 적합하도록 크지 않은 공간에 단순한 구조, 쾌적한 비례, 간격한 선을 지닌 목가구가 제작되었다(Table. 1).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숭상으로 말미암아 명나라부터 문방생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아 서안, 문갑, 탁자, 책장, 연봉, 지붕, 연적, 향꽂이 등 문방

용기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것이 의자생활로 인하여 높고 크며 또 권위와 기교로 이루어진데 반해, 조선시대에는 평좌 생활에 따라 행동반경이 좁고 낮으므로 자연히 단순하고 소박한 소품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방가구들의 배치를 살펴보면, 아랫목의 다락문이나 병풍에는 자연 경관이나 남성의 기운 또는 인생의 좌우명을 나타낸 산수화, 사군자, 시 등을 그려 넣어 그 방의 주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실내의 중심인 아랫목에는 글을 읽거나 쓰는 용도 외에 내적과 마루 앉은 주인의 위치를 지켜주는 서안과 그 측면에 문방사우인 벼루, 먹, 종이, 붓을 넣은 연상이 놓여졌다. 또 서안의 옆에는 낮고 넓은 4각의 목판형 재판이 있어 연초합, 타구, 재떨이, 담뱃대 등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하고 또 단정하게 보이도록 했다.

벽면에 붙여 배치하는 가구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세로 폭을 얇게 설계, 제작하였다. 그중 책을 얹어 놓은 탁자는 가느다란 골재와 층널로 구성되어 실내공간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쾌적한 면분할과 비례는 우리 목가구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4.2. 사랑방가구(책장, 서안, 사방탁자)의 비례

공간의 전체와 어떤 부분, 또는 부분들 사이의 크기의 관계가 비례이며, 이 비례의 원리와 깊은 관계를 지니는 것은 균형이다.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고른 모양으로 서로 반대되는 힘의 평형 상태를 말하며 대칭균형과 비대칭균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형태의 균형은 물질적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효과상 통일·조화·울동 등의 원리와 관련을 갖으며 대칭(Symmetry)·부대칭(Asymmetry)·안정(Stability)·비례(Proportion) 등의 형식을 갖는다. 시각적 균형 요소는 일반 조형요소인 선·형·방향·색 등 시각요소의 배치와 양·성격 등이 합치되어 표현되며 이러한 균형에서는 정적·극적·경쾌감 등의 감성을 나타낸다. 균형을 요약하여 정의하면 “시각적인 무게감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행 상태”라 할 수 있다.

가구에서 보여주는 대칭균제의 미는 미학상으로 보면 그 형식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 미적 원리로서의 의의는 미약하다. 대칭균제에 있어서 그 내용의 복잡성이 오히려 미적조건이 되고 따라서 비례나 통일이나 조화 같은 다른 원리적인 관계와 종합해서 처음으로 미적 의의를 다하게 된다. 다만 형식의 특색은 그것이 수평의 방향에 있어서 좌우대칭을 갖는데 있다. 따라서 그것이 수직보다 수평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이다. 그래서 목가구에서 좌우대칭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목리의 자연스러움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생리·해부적 조건과의 일치하며, 기교적으로 수직의 방향에서는 움직임의 관계가 균제를 곤란하게 하며, 수직의 상하대칭은 시각적 착시에 의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랑방가구의 특징은 간결한 선과 명확한 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구조적 측면과도 연관이 된다. 또한 군더더기 없는 골격 구조로 선과 면이 만들어 내는 적절한 비례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잔잔한 안정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선과 면으로 이루어지는 사랑방가구의 구조적 형태미는 골재와 판재의 맞춤에서 파생된 것으로 탁자, 책장 등 골재가 주를 이루는 가구와 서안, 문갑, 농, 반닫이 등 판재가 주가 되는 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각목을 중심으로 하는 각재 결구의 가구는 탁(卓)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들로 수납의 기능보다 장식물의 전시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탁은 네 개의 다리 위에 판상의 것을 얹은 모양이 된다. 거기에서 다리를 길게 하여 층층이 칸을 넣으면

층탁자와 사방탁자 등이 된다. 그러나 개방된 사면을 막고 한쪽에 문을 내면 장의 형식이 되는데, 책장이나 의장은 대개 이같이 뼈대를 세운 장의 격식으로 꾸며지는 것이다(이 1986)(Table. 2).


Table. 2의 사랑방가구(책장, 서안, 사방탁자)의 특징에서 살펴보면 사랑방에서 사용되었던 가구는 시각적으로 단순한 형태미를 지니고 있으며, 선과 면 구성으로 이루어진 단일 요소들은 반복과 대칭적 표현으로 질서와 통일성을 함축하고 있어 안정된 비례의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례미를 엿볼 수 있는 면분할과 대칭의 형태에서는 과다한 장식을 배제한 소박한 자연의 나뭇결을 살린 우리의 자연주의사상을 엿볼 수 있다.

책장의 형태는 3층, 2층, 낮은 2층, 책장과 받단을 겸한 2층, 수납을 겸한 2층 책장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조는 좌우로 여닫이문이 열리며 가로 세로 균일한 간격으로 면분할되고 여닫이문 양옆으로 쭈뼛간이 있어 문 안쪽으로 공간이 생기는 구조이다. 내부에는 전체적으로 선반이 놓여 있고, 다리와 바닥은 굵은 기둥이 다리까지 하나로 연결된 것이 대부분이다. 책장의 가로 폭과 높이는 비율은 1 : 1~2 이다. 이상과 같은 책장의 형태와 구조에서 판재의 면과 골재의 선이 만들어내는 분할과 확장미의 면 비례를 엿볼 수 있다.

책장은 전체적으로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 직선적 형태가 강조된 직육면체 모양으로, 측면의 기둥 또는 판재가 바닥까지 확장되어 다리 역할을 하였다. 전면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골재를 덧붙여 판재를 면분할하였고, 측면 역시 내부구조를 따라 판재에 골재를 덧붙여 면분할을 하였다. 다리는 몸체와 달리 판재로 막지 않고 골재로만 연결하거나, 판재 일부를 깎아내어 개방감을 부여하였다(김 2012).

서안은 조선 후기 사랑방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구로 선비들의 학문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바닥에 앉아 서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책상의 역할을 하였던 서안의 크기는 지금의 책상과는 달리 책 한권을 펼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이나, 사랑방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객을 맞는 기능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서안의 형태는 평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of the hall (Book Chest, Writing Table, Open Etager)

종 류	특 징	사 진
책장	<p>책장의 구조적 특징은 일반 장들과 다른 의장 외에, 책을 넣기 편하도록 벽 칸, 머름 칸이 생략되거나 아주 간단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일반 장들보다 다소 작고, 높이는 2층에서 5층까지 다양하나 2~3층이 많으며, 길이와 폭은 약 80 cm와 40 cm의 평균을 나타낸다.</p>	
	<p>우측 상단의 수납을 겸한 2층 책장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약 2:3으로 다른 책장들과 달리 전면에 면분할은 크게 함으로서 시원한 느낌과 부피감을 강조하고 있다. 귀벽간을 없애고, 머름간을 상하로 둔 내부구조에 맞추어 문을 분할하지 않고 넓은 판재를 사용하였다.</p>	
	<p>우측 중앙의 2층 책장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약 5:4로 다른 책장에 비해 키가 낮은 반면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형태가 강조되어있고, 여닫이문 좌우로 귀벽간을 두어 내부에 깊은 수납공간을 지녔으나 전면의 형태는 여닫이문과 귀벽간의 크기를 동일하게 두어 규격의 안정감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p>	
	<p>우측 하단의 3층 책장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약 1:2로 수직과 수평 방향의 직선적인 형태를 강조하였으며, 문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균일하게 면분할 되어있다.</p>	
서안	<p>우측 상단의 서안은 천판아래 서랍이 없는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과 단순미를 강조하였고,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약 3:1로 좌우 측면을 천판의 내부로 깊게 들어 안정감을 지니고 있다.</p>	
	<p>우측 하단의 서안은 천판 아래 앞뒤가 뚫린 선반으로 그 아래칸에 서랍을 배치한 사례로 전체적으로 판재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너비와 높이의 비율은 약 2:1로 상단의 서안에 비해 쾌적한 비례는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강조하고 있다.</p>	
사방탁자	<p>사방탁자는 방형의 네 기둥과 층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이 트여 있어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밑 부분의 층널 한 단을 수납장으로 만들거나 혹은 수납장 위에 두 개의 서랍을 곁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2·3층의 층널 양면, 또는 뒷면을 막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형태를 사랑방에서는 문방기구로, 안방에서는 애완물 등을 올려놓는 장식기구로 즐겨 사용하였다.</p>	
	<p>우측 상단의 사방탁자는 사면이 개방형으로 골재의 기둥과 층널과 천판이 판재로 구성되어있다. 아래층에는 크고 무게감 있는 완상품이나 책을 놓았고, 윗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경쾌한 소품을 놓아 사용자 스스로 시각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너비와 높이의 비율은 약 1:4이다.</p>	
	<p>우측 중앙의 사면이 뚫린 사층사방탁자는 수직과 수평의 직선을 강조하고 있고, 아랫부분의 장은 판재로 마감하였고 윗부분은 골재의 선을 활용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p>	
	<p>위의 개방형 사방탁자와 같이 약 1:4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p>	
	<p>우측 하단의 이중 사방탁자는 사면이 뚫린 골재로 구성된 개방형 구조이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먼 없이 가는 선만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다른 탁자와 같이 바닥에서 일정공간을 띄웠으며, 사면에 가늘고 단순한 풍혈장식을 가지고 있다. 너비와 높이의 비율은 약 1:2로 낮은 안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p>	

평하고 가로방향으로 길게 뻗은 판재와 측면 좌우 판재로만 구성되어 단순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로 폭과 세로 폭은 2 : 1에서 3 : 1의 비율로 낮은 반면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과 연결되는 하나의 특징은 열림의 공간에서 표현되며, 열림과 비례의 대표가구는 조선시대 사방탁자가 대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탁자는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수직방향으로 길게 뻗은 골재 구조 사이에 층널 판재가 끼워진 형태를 지녔고, 층널 판재는 상, 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분할의 의미를 드러내었고, 골재의 기둥은 입면을 개방시켜 수평적 방향으로 주변으로의 공간 확장을 의미하였다. 공간을 위아래로 분할한 것은 수평적으로 공간을 개방시키고 확장시킨 것과 비교할 때 공간의 단절을 의미하고, 바깥으로 확장된 공간은 공간과 가구의 소통을 의미하여 단절과 소통의 상대적 원리가 탁자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 2012).

조선 후기의 사방탁자에 표현된 조형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3~4층의 높이로 제작되었으며 너비와 높이의 비율은 대략 1 : 4로 표현되어 타 가구에 비하여 좁고 높은 형태를 지녔다. 탁자는 면보다는 선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가구로 기타의 장식을 배제한 단순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및 구조에서 과장되지 않게 단순한 구조로 제작되었고, 낙동법을 이용하여 색과 광택을 억제하여 자연의 나뭇결을 강조하였으며, 내부의 공간을 무(無)의 색으로 붉으로써 열린 공간을 통한 여백의미를 강조하였고, 널결과 끈은 결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유연성과 강직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서 2014).

5. 결 론

조선조 가구의 미의식에서 우리나라 비례미는 사상적 배경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조선조 가구의 비례미는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소박함에 근간을 두고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연관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사랑방가구의 골재가구를 대표하는 책장과 사방탁자 그리고 판재가구를 대변하는 서안을 중심으로 한 비례미를 연구하여 자연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조선조 목가구의 책장과 서안 그리고 사방탁자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책장은 너비와 높이의 대략적인 비율이 1 : 1~2로 나타나며, 그 모양새를 살펴보면 골재로 연결된 구조와 판재로 구성된 구조 즉, 선과 면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판재의 면은 골재의 선에 의해 각각 면분할되었고, 골재의 선은 앞면과 옆면, 몸체와 다리가 하나로 길게 연결되어 확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나뉜 면은 골재에 의해 따로 독립되어 단절된 상태가 되고, 골재가 나타내는 선은 이어짐과 확장의 의미를 지녀 소통을 의미하며 규칙적인 면분할은 넓지 않은 사랑방 공간에서 부피에 대한 시각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조선시대 목가구를 중심으로 문화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표현함으로써 고유성을 갖는 독창적인 우리자신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서안은 조선시대 사랑방에 사용되었던 다른 가구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으나 가로와 세로가 2~3 : 1 비율로 매우 안정적이며 사랑방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객을 맞는 중추적 가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조와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학문을 위한 가구로 화려함을 배제한 정신적 내면의 세계를 강조하여, 판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고 간결함을 표현하며,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써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었다. 서안의 수직, 수평의 직선적 형태는 강인함을 의미하였고, 모서리의 곡선 처리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것은 강함과 부드러움, 비움과 채움의 서로 다른 원리가 함께 공존하는 조선시대 선비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방탁자에서 나타나는 구조상의 비례는 대체적으로 3~4층으로 구성된 1:4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면적에 비하여 세로 면이 높아 불안정할 수 있는 비례를 각층에 여백이라는 공간을 두어 쾌적한 비례를 보이고 있다. 표현적 특징과 형태와 구조 분석은 수직으로 곧게 뻗은 골재 사이에 층널을 이루는 판재가 끼워진 구조를 지녔다. 사방탁자는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통해, 단절과 소통, 존재의 유무, 억제와 발현, 경직성과 유연성이라는 원리적 개념을 드러내었다. 이 중에서 특히 단절, 억제, 경직 등의 의미는 제한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이와 반대로 소통, 발현, 유연의 의미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엄격한 제한과 구속이 가해지는 동시에 자유로운 본성을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조선후기 사랑방의 탁자는 조화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부여하되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아 평등한 관계 위에 수직적 질서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유가사상의 정신을 드러내었다. 또한, 상호보완적 관계인 음양의 조화와 함께, 절제된 방식으로 중용의 자세를 지킴으로써 진정한 미의식이 드러나도록 하였다(김 2012).

이상으로서 현대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생활공간과 인간과 공간의 매개체인 가구의 비례에 대한 근원적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사랑방가구의 한국적 정체성과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장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적 정체성

을 갖는 조선시대 목가구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종석. 1986. 한국의 목공예 上. 열화당. 70, 119, 198, 199쪽.
- 김삼대자. 1997. 전통 목가구. 대원사.
- 서석민. 2014. 조선시대 사방탁자에 표현된 조형관.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47.
- 김은정. 2012. 조선후기 사랑방 목가구의 표현과 의미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78, 82, 135, 136.
- 김재원. 2011. 조선시대 가구의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와 목리의 상관관계 분석.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권윤경. 2001. 조선시대 목가구를 응용한 실내가구 및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0. 조선시대 목가구의 조형요소를 응용한 금속 표현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1.
- 최경숙. 2000.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한국 전통가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 지식백과 사방탁자(四方卓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552&cid=1631&categoryId=1631>
- 네이버 지식백과 소반(小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www.museum.go.kr>